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309>

JCCT 2022-11-37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tudents' Intents to Leave School: Focusing upon Human Rights Environments in School

김신영*

Sin-Young Kim*

요약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층위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동시에 조사 문항, 그리고 주요 독립변수의 기술통계치가 제시될 것이다. 다음은 이항로지스틱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총 4개의 분석모형에 대한 검증이 수행될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성별과 연령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한 수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과 크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응답자 연령의 효과는 일관된 수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독립변수를 사회인구학적 변수, 개인수준변수, 가족체계관련 변수, 학교체계관련 변수로 구분했을 때, 다른 변수군에 비해 학교체계관련 변수들의 효과가 다른 변수군 내의 변수들에 비해 통계적 유의도와 효과의 크기 측면 모두에서 응답자의 학업중단 의사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학업중단의사, 이항로지스틱, 학교인권환경, 학생자치활동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potential factors in various levels that affect students' intent to leave school. Those levels includ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After thorough review of literature on related subjects, the data from 「2021 Youth Survey on Human Right Conditions」 will be analyz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s several results. First of all, respondents' age and sex strongly influence students' intents to leave school. Secondly, in terms of effect size, respondents' age is strongly related to the dependent variable in all models. Third, compared to those variables in individual and family levels, the effects of variables in school level are mo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tents to leave school.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e effect of students' independent activities in school on the intent to leave school implies that students' voluntary and independent activities in school could decrease students' frustration in school and increase motivation to stay in school in certain ways.

Key words : Intent to Leave School, Binary Logistic Regression, Students' Independent Activities

*정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일

Received: September 30, 2022 / Revised: October 27, 2022

Accepted: November 3, 2022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Dept. of Silver Industry, Hanyang Cyber Univ, Korea

I. 서 론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층위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학교층위변수 가운데 학교의 인권상황이 학업중단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일종의 심화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재학 중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과거 문헌 검토를 계량 연구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학업중단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분석 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동시에 조사 문항, 그리고 주요 독립변수 구성과 기술통계치가 제시될 것이다. 다음은 이항로지스틱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총 4개의 분석모형에 대한 검증이 수행될 것이다. 각각의 모형은 인구사회학변수, 개인층위 변수군, 가족층위 변수군, 그리고 학교층위 변수군이 누적적으로 모형에 투입되는 일종의 위계적회귀모형분석에 해당되며, 각각의 모형분석 결과는 개별 변수의 유의도와 상대적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서술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 요약에 이어 정책 제언이 진행될 것이다.

II. 본 론

1.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학업중단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위한 모형 구축의 사전 단계로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온 변수들에 대한 과거 계량 연구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정규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퇴학, 유예, 면제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를 지칭한다. 과거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명칭들은 중퇴생, 중퇴

청소년, 학교중퇴, 학교중단, 학업중퇴, 학업중퇴청소년, 중도탈락, 학교중도탈락, 학업중단청소년, 학교박청소년, 학교를 떠난 아이들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은 학업중단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거나 연구자들 조사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명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해 왔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연구들에서 드러난 학업중단 영향 요인들을 개인층위, 가족층위, 그리고 학교층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심리변수 가운데 학업중단과 강한 연관을 갖는 변수로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양적연구들을[1] [2] [3] 통해 높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은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행동 및 의사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물론 앞서 언급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청소년기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 변수 중 우울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행동 및 의사에 우울이 미치는 영향은 가족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이 학업중단 행동이나 의사에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 예컨대, 부모의 학대나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거나 [5], 이와 유사하게 부모양육태도나 교사차별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6] 청소년 우울은 조퇴와 무단결석을 증가시키고 학교 수업 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학업중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정관련 요인으로는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 수용, 지지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과잉간섭, 심리적 통제, 권위주의적 통제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모두 포함하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 전반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단 많은 연구들이[7, 8, 9]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학업중단(의도 포함)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지나친 허용적 양육태도 또는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중단 가능성을 낮추며, 학대와 괴잉간섭은 반대로 학업중단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또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과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과는 정적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본다. 청소년의 삶에 학교생활이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순히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관계와 경험들, 학업성적, 그리고 학교생활에의 적응 등이 그들의 정신건강이나 이후 진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은 청소년의 삶이 곧 그들의 학교에서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업중단 위험요인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학교에서의 불공정 경험, 무단결석, 학교에서의 처벌행위, 학교상담 관련 요인, 학습에 대한 무기력, 교칙에 대한 불만 등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요인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선행 연구들이[3,6,10] 지목하고 있는 학교 관련 학업중단 영향요인들로는 크게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차별경험(인권침해 경험 포함), 학교생활 적응, 그리고 학교성적 수준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호혜적 관계를 가지며 이는 학생의 전 생활과정에 거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차별경험의 경우, [10]은 교사의 차별 없는 태도가 학업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발견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연령기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47.6%가 학업중단 이유로 학교 부적응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1) 조사개요

이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되는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형태로 수집되었다.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당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20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총화다단계집락표집(층: 학교구분, 집락: 학교/학급)을 통해 총 9,0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였다. COVID-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면접조사 비율은 30% 내외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중 총 340개 학교에서 8,718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원자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중/고등학생들로만 자료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 사례 수는 중/고등학생 5,786명이었으며 응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5,786	100.0	
성별	남학생	3,007	52.0	
	여학생	2,779	48.0	
학교급	중학교	2,876	49.7	
	고등학교	2,910	50.3	
고교유형	일반고	2,038	70.0	
	자율고	223	7.6	
	특성화고	590	20.2	
지역규모	특수목적고	58	1.9	
	대도시	2,196	37.9	
	중소도시	2,815	48.6	
가족 유형	읍면지역	776	13.4	
	양부모가정	5,138	88.8	
	한부모가정	523	9.0	
	조손가정	39	.7	
학업성적	기타	71	1.2	
	상	1,568	27.2	
	중	2,512	43.5	
경제적 수준	하	1,695	29.3	
	상	2,904	50.3	
	중	2,258	39.1	
		하	614	10.6

3. 분석결과

1) 주요 변수 구성 및 기술통계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 가운데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구성된 합산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합산변수일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신뢰도 값(Cronbach alpha)도 제시하고자 한다. 변수의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학업중단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기본모형(모형 1)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응답자의 성별'과 '응답자 연령'이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다음 모형(모형 2)에는 기본모형에 개인차원 변수들인 '주관적 삶의 만족', '정신건강상태', '인권감수성', '주관적 인권존중 정도', '인권관련지식정보', '양심종교표현의 자유'가 투입되었다. 다음 모형(모형 3)에는 모형 2에 가족 차원 변수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학력차분', '부모로부터 욕이나 체벌 경험', '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임 경험'이 투입되었다. 최종 모형(모형 4)에는 모형 3에 학교 차원 변수인 '학생자치활동 경험',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선후배괴롭힘경험', '학교생활 만족'이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모형 자체의 유의도, 개별 변수의 유의도,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확률로 변환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모형인 모형4를 위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χ^2 값은 411.315($df=19$)로 이 모형 역시 절편만 있는 기저 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 성별'과 '응답자 연령', '인권감수성', '주관적 인권존중정도', '인권관련지식정보', '정신건강상태', '삶의 만족'은 계속해서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3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는 모형4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형 3에서 유의했던 '의사결정시부모님태도'와 '가정에서의 학대나방임'은 모형 4에서 유의성을 상실한 반면, 모형 3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경제적 수준'은 모형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4에 추가로 투입된 학교 관련 변수 가운데 '학생자치활동', '학교생활만족', 그리고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수의 문항을 통해 구성된 독립변수 모두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학업중단 의사의 승산이 0.59배 증가하며, 응답자 연령이 일 년 높아질수록 학업중단 의사의 승산은 1.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을수록($\exp^B = 1.09$), '주관적인권존중정도'가 수준이 낮을수록($\exp^B = .84$), '인권관련지식정보' 수준이 낮을수록($\exp^B = .89$),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exp^B = 1.14$), '삶의만족'도 수준이 낮을수록($\exp^B = .84$), '양심종교표현의자유' 수준이 높을수록($\exp^B = 1.16$),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exp^B = .75$), '학생자치활동' 수준이 낮을수록($\exp^B = .65$), '학교생활 만족' 수준이 낮을수록($\exp^B = .79$), '학업성적'이 높을수록($\exp^B = 1.38$)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화 백분율로 환산하면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이 41% 증가하며($100*(\exp^B - 1) = -41$), '응답자연령'의 경우는 응답자 연령이 일 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은 17%($100*(\exp^B - 1) =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인권감수성'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은 9%($100*(\exp^B - 1) = 9$) 증가하며, '주관적인권존중정도'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은 16%($100*(\exp^B - 1) = -16$) 감소하며, '인권관련지식정보'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은 11%($100*(\exp^B - 1) = -11$) 감소하며, '정신건강상태'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은 14%($100*(\exp^B - 1) = 14$) 증가하며, '삶의만족'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은 16%($100*(\exp^B - 1) = -16$) 감소한다. 가족관련 변수에서는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이 25%($100*(\exp^B - 1) =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 추가로 투입된 학교관련 변수 중에서는 '학교자치활동'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이 35%($100*(\exp^B - 1) =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만족'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이 21%($100*(\exp^B - 1) =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이 38%($100*(\exp^B - 1) =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신뢰도, 평균비교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Mean Comparisons

변수	Mean	S/D	Cronbach alpha	평균 비교 검증		
				의사 없음 (n, M, S/D)	의사 있음 (n M, S/D)	t
인권감수성	23.75	2.78	.732	(4,057/23.80/2.74)	(1620/23.66/2.81)	1.76
주관적인권 존중정도	12.82	1.93	.736	(4,068/13.15/1.85)	(1,621/12.00/1.86)	21.07***
인권관련 지식정보	5.59	1.59	.716	(4,073/5.67/1.58)	(1,622/5.42/1.61)	5.30***
양심종교 표현자유	6.57	1.30	.579	(4,054/6.64/1.27)	(1,610/6.42/1.37)	5.55***
정신건강상태	12.25	4.11	.816	(4,074/11.28/3.70)	(1,612/14.76/4.05)	-31.10***
경제적수준	1.60	.67		(4,099/1.55/.63)	(1,626/1.74/.73)	-9.97***
부모학력자본	9.56	1.10	.722	(3,110/9.59/1.10)	(1,257/9.47/1.12)	3.12***
부모로부터 욕이나체벌	2.82	1.51	.695	(4,099/2.71/1.41)	(1,619/3.11/1.70)	-9.13***
부모님태도 의사결정시	13.76	2.16	.833	(4,072/13.94/2.08)	(1,614/13.33/2.28)	9.63***
가정에서의 학대방임등	6.09	1.56	.417	(4,099/5.91/1.38)	(1,617/6.54/1.85)	-14.09***
학생자치활동	5.77	.61	.687	(1,373/5.82/.52)	(442,5.61,.83)	6.05***
학교인권 침해경험	4.16	2.09	.603	(4,098,3.94/1.89)	(1,623/4.73/2.46)	-12.9***
교사로부터 욕이나체벌	2.22	.79	.578	(4,093/2.16/.67)	(1,620/2.37/1.01)	-8.97***
선후배괴롭힘경험	6.25	1.07	.649	(4,101/6.19/.92)	(1,620/6.38/1.30)	-6.14***
학교생활만족	12.51	2.23	.779	(4,099/13.02/2.04)	(1,616/11.19/2.15)	30.1***
학업성적	2.02	.75		(4,098/1.94/.73)	(1,626/2.22/.76)	-13.13***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학업중단의사 결정요인 분석 결과

Table 3. Determinants of Respondents' Intents of Leave Schools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Exp(B))	S.E.	B (Exp(B))	S.E.	B (Exp(B))	S.E.	B (Exp(B))	S.E.
성별	-.721***(.486)	.061	-.437***(.646)	.071	-.555***(.574)	.084	-.521**(.594)	.175
응답자연령	.218***(.1244)	.018	.199***(.1220)	.020	.240***(.1271)	.025	.164**(.1178)	.052
개인 층위 변수								
인권감수성			.043**(.1044)	.013	.045**(.1046)	.016	.093**(.1097)	.032
주관적 인권존중정도			-.186***(.830)	.022	-.191***(.826)	.026	-.165**(.848)	.054
인권관련 지식정보			-.090***(.914)	.022	-.119***(.887)	.026	-.107**(.899)	.048
양심종교 표현자유			.030(.1031)	.028	.013(.1013)	.034	.149**(.1161)	.072
정신건강상태			.134***(.1143)	.011	.122***(.1130)	.013	.131***(.1140)	.026
삶의 만족			-.154***(.857)	.020	-.171***(.843)	.023	-.168***(.845)	.045
가족 층위 변수								
경제적수준					-.069(.933)	.063	-.282*(.755)	.131
부모학력자본					.029(.1029)	.037	-.058(.944)	.070
부모로부터 욕이나체벌					.019(.1019)	.028	.061(.1063)	.055
의사결정시 부모님태도					.024(.1025)	.022	.047(.1048)	.044
가정에서의 학대방임등					.113***(.1119)	.026	.055(.1057)	.050
학교 층위 변수								
학생자치활동							-.423**(.655)	.122
학교인권침해 경험							-.023(.977)	.036
교사로부터 욕이나체벌							.136(.1146)	.085
선후배괴롭힘 경험							.114(.1121)	.070
학교생활만족							-.232***(.793)	.043
학업성적							.324**(.1382)	.109
χ^2 (df, p)	284, 675(2, .000)		1177.733(8, .000)		994.759(13, .000)		411.315(19, .000)	
-2 로그우도	71.6		76.4		77.2		83.2	

* $p < .05$, ** $p < .01$, *** $p < .001$.

III. 결 과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성별과 연령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한 수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중단 의사를 가질 확률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과 크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응답자 연령의 효과는 일관된 수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독립변수를 사회인구학적 변수, 개인수준변수, 가족체계관련 변수, 학교체계관련 변수로 구분했을 때, 다른 변수군에 비해 학교체계관련 변수들의 효과가 다른 변수군내의 변수들에 비해 통계적 유의도와 효과의 크기 측면 모두에서 응답자의 학업중단 의사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자치활동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효과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앞서 언급한 변수군들 가운데 가족체계관련변수들은 다른 변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 점 역시 학업중단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평가하고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개인수준변수에서 응답자의 정신건강 상태는 통계적 유의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토 론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연구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충분한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학업중단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며, 이 연구는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주요하게 '학교적응', '학생자치활동', '정신건강 상태', '연령' 등을 밝혀냈다. 학업중단 관련 과거 연구들에 비해 이 연구가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들 들자면, 첫째,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수집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한 국가승인통계자료를 분석에 활용했다는 점, 둘째, 과거 연구들에서 밝혀낸 주요 변수들을 모형에 순차적으로 포함시켜 효과를 통제한 후 개별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개인/가족/학교 층위로 구분하여 위계적으로 분석에 투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V. 결 론

「UN 아동권리협약」은 중·고등학교 재학중 청소년의 학업중단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으로는 학업중단의 근본 원인과 현상 자체의 규모에 대한 파악을 주문하고 있다. 이 연구가 「UN 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한 연구의 일부인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임을 고려할 때, 학교인권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것은 실천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학교 내 인권환경의 개선, 더 나아가 학생자치활동의 내실 있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References

- [1] Chung Minseon et a., "A Qualitativ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ontinuing Schooling of Potential School Dropouts", *Youth Counselling Study*, Vol. 19 No. 1, pp. 87-115, 2011.
- [2] Moon Doosik, Choi Eunsu.,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Youth's Addiction to Smartphone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Youth Studies*, Vol. 22, No. 10, pp. 213-236, 2015
- [3] Hart, R.,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UK : Earthscan, 2016.
- [4] Griffiths, A.J., Sharkey, J. D., & Furlong, M. J.,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09
- [5] An Hyejin., "The Longitudinal Study of effect of Parents' Abuse and Neglect on Youth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Learner-Centered Curriculum Study*, Vol. 16, pp. 474-493, 2016.
- [6] Shin Seongja, Chung Sookhee., "The Effect of Teachers' Recognition of School Working Environments and Students' Individual Traits on Physical and Non-Physical Victimization Experience", *School Social Welfare*, Vol. 19, pp. 141-172, 2010.

- [7] Lee Sunhee., An Effect of Recognized Parenting Attitudes on the intent to leave school of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 Resilience,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2012.
- [8] Kim Soonkyu., "An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s Factors on Youths' Dropping out of School" *Youth Studies*, Vol. 11, no. 3, pp. 43-63, 2010.
- [9] Lambon, S., Mounts, N., Steinberg, L., Dornbusch, S.,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Vol. 62, no. 5, pp. 1049-1065, 1991.
- [10] McDill, E. L., Natriello, G., & Pallas, A. M., "A Population at Risk: Potential Consequences of Tougher School Standards for Student Dropouts" In G. Natriello (Ed.), *School dropouts: Patterns and policies*. pp, 106-147.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7.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연구과제인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일부로 수행된 연구임.

